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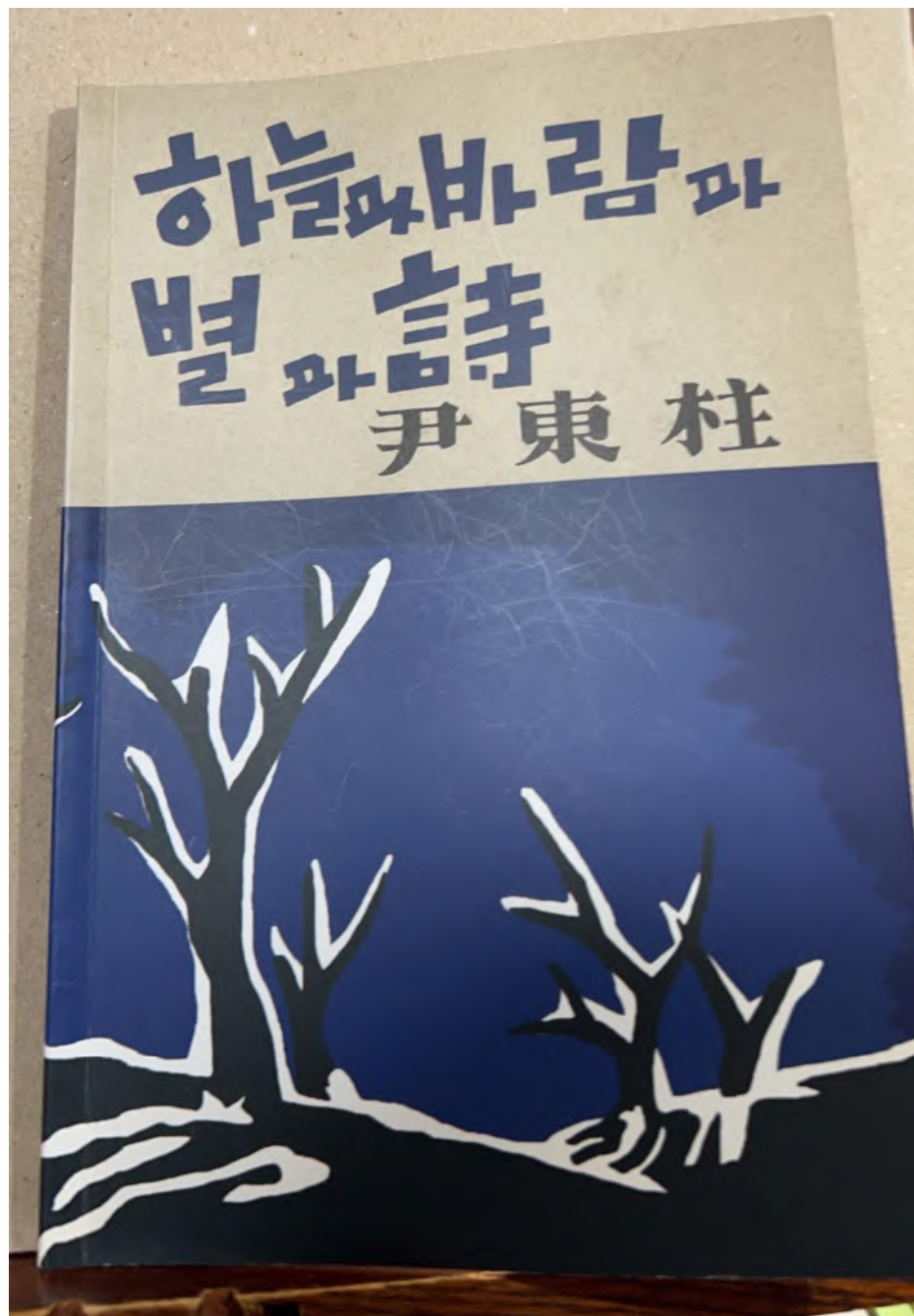
『天（空）と風と星と詩』初版本 に見る尹東柱の面影



尹東柱を偲ぶ会

2023年2月11日

井田 泉



『天（空）と風と星と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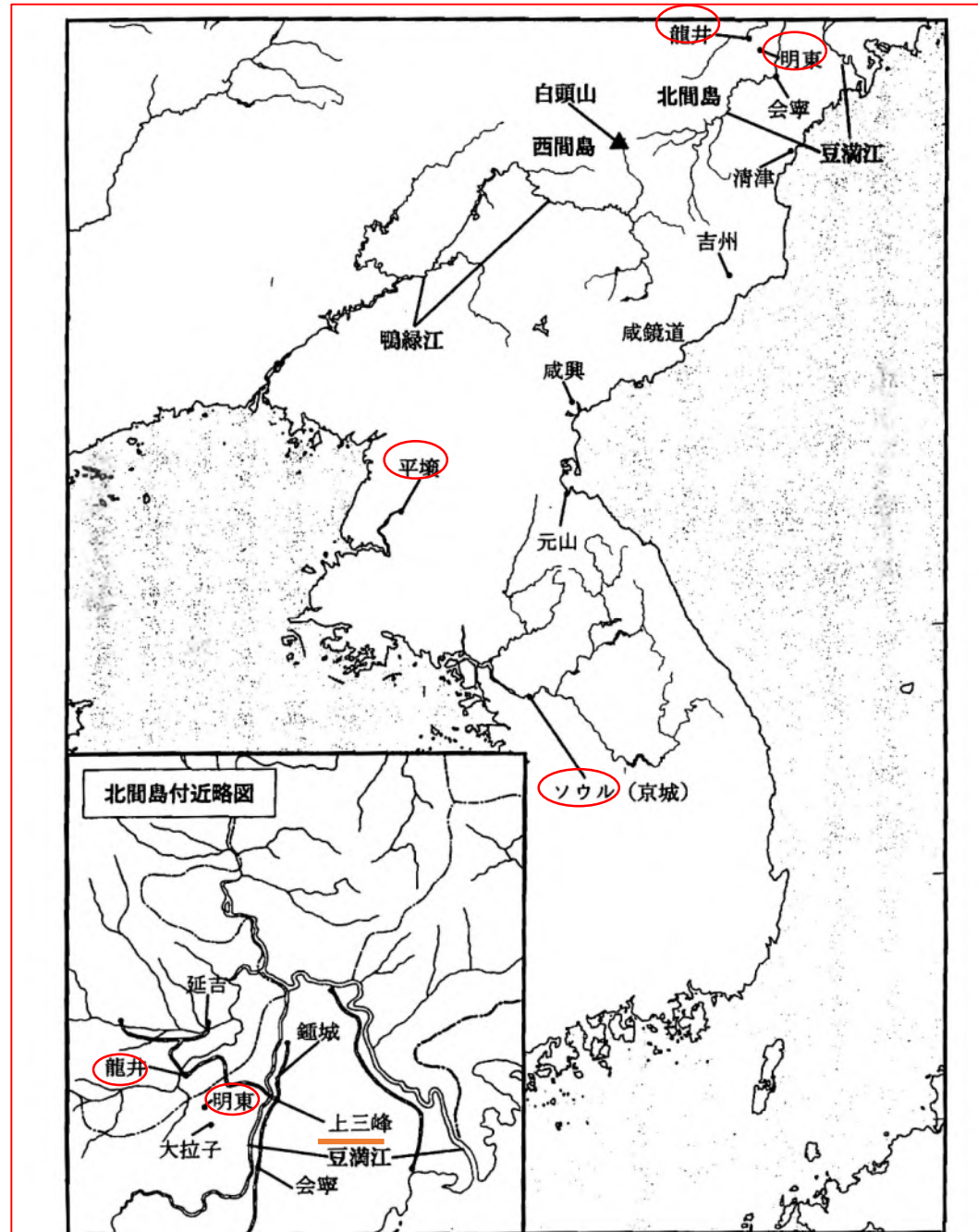
初版本

1948.1.30 正音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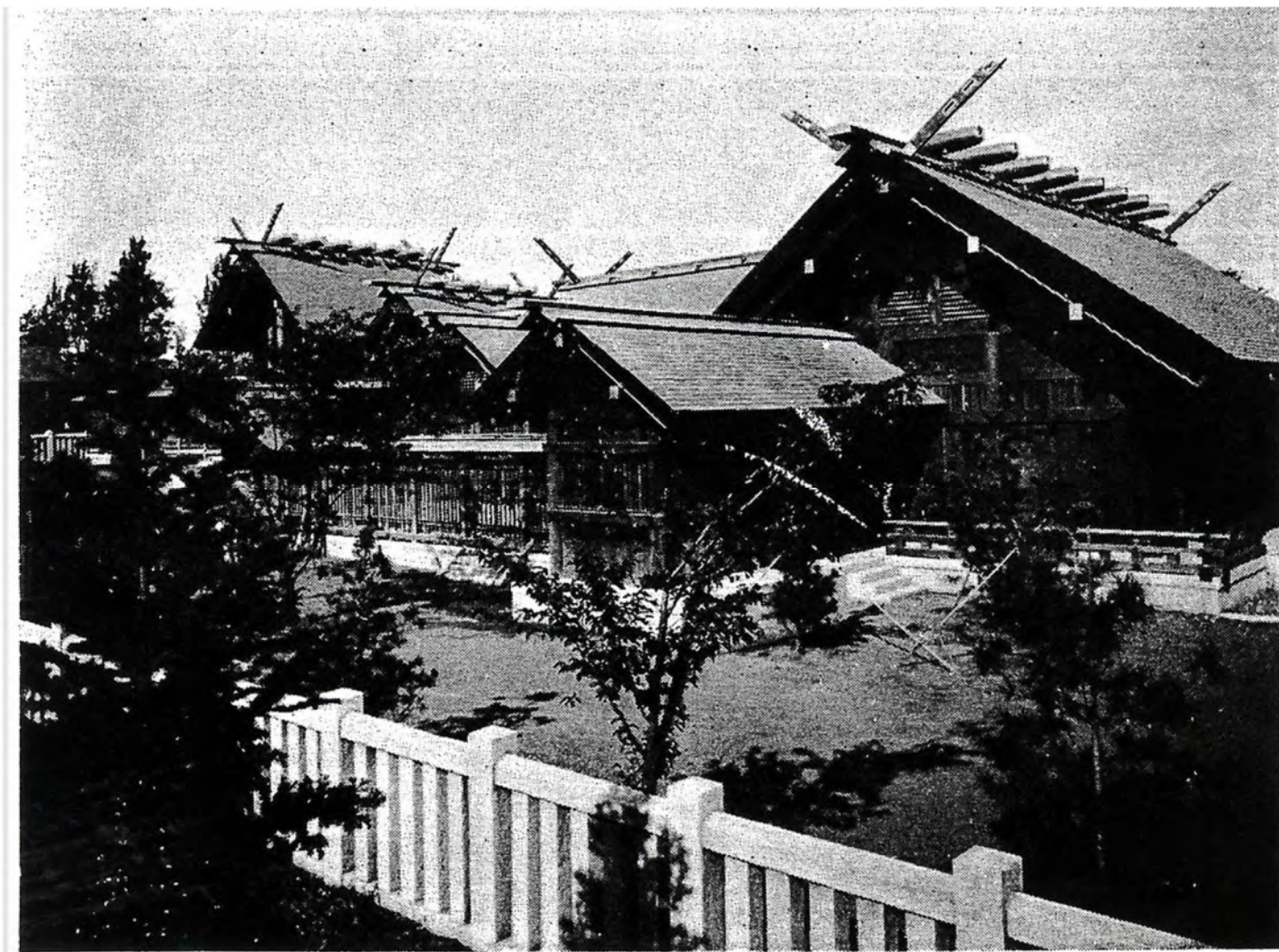
尹東柱の生家

関連地図



平壤神社

1913（大正2）創建
祭神は天照大神および国魂大神



1936年、日本の神社参拝強
要に抗議して、崇実中学校
（平壤）を自主退学。

ヨンフイ 延禧専門学校

当時の代表的私立学校（キリスト教系）。延世大学校の前身。尹東柱の数々の名作がこの時期に生まれた。1938～1941在学



同志社礼拝堂

(1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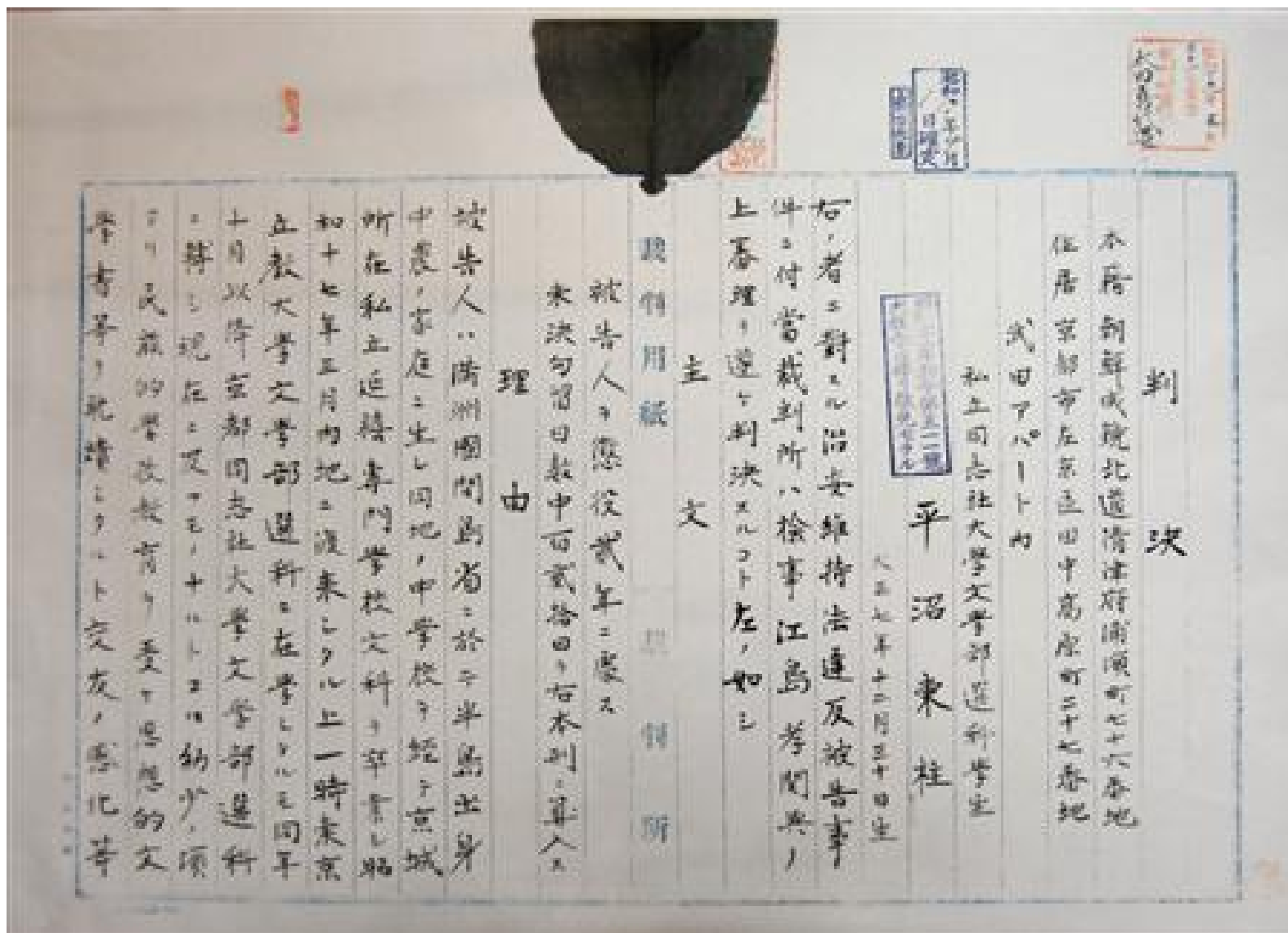
1942年秋、立教大学
から同志社大学に転入。

判決

京都地方裁判所

1944.3.31

治安維持法違反
懲役2年



福岡刑務所
北三舎2階独房
108号室

1945.2.16
午前3時36分
絶命

2005/2/9

詩人・尹東柱 獄死の福岡刑務所

尹東柱が獄死した福岡刑務所の写真



尹東柱

内部写真 同大に寄贈

評価。近年は日本の教科書にも紹介された。寄贈された写真は、同刑務所が解体中の昭和四十二年三月、吉田さんの知人の福岡市の写真家、平田裕博さん宅が市の記録写真として白黒で撮影。吉田さんは、同刑務所の元所長から政治犯の受刑者の舎房を教えてもらい、その周辺の写真を撮らせた。



没後60年を機に12日開催

「追悼の集い」で公開

今出川キャンパスに碑があり、同志社大は写真とその案内文書に載せ、追悼会は午後一時半

から待望の前で始まり、韓国の研究者や尹の同級生だった日本人が講演などを行う。野本真也・同志社大理事長は「節目の年に貴重な写真が寄せられたことに驚き、尹さんの心情に改めて感銘した。国際友

戦時中にハングルで詩を書き、同志社大学（京都市）に留学中に逮捕された近代朝鮮を代表する詩人、尹東柱（ユン・ドンジュ）が獄死した福岡刑務所（福岡市）の内部を写した写真四枚が、八日までに同大学に寄贈された。尹の大学の後輩にあたる福岡市の元公務員、吉田一之さん（八十九）が保存していたもので、尹の没後六十年を機に十二日に同大学今出川キャンパス（京都市上京区）で公開される。

「死ぬ日まで空を仰ぎ、一点の恥辱なき」とを、筆あいにその息を私に心痛んだ」（『序詞』）と、戦後に詩集が出版され、「序詞」に代表される強い民族愛と情熱的な作風は韓国でも北朝鮮でも

好評。近年は日本の教科書にも紹介された。寄贈された写真は、同刑務所が解体中の昭和四十二年三月、吉田さんの知人の福岡市の写真家、平田裕博さん宅が市の記録写真として白黒で撮影。吉田さんは、同刑務所の元所長から政治犯の受刑者の舎房を教えてもらい、その周辺の写真を撮らせた。

好や教育に役立たい。吉田さんは「当時、日本への留学は困難で、そのあけの役職を果と残念でなかった。せめて写真を国際交流の一助にしてほしい」と話している。

尹東柱から親友・鄭
炳昱に贈られた自選
詩集表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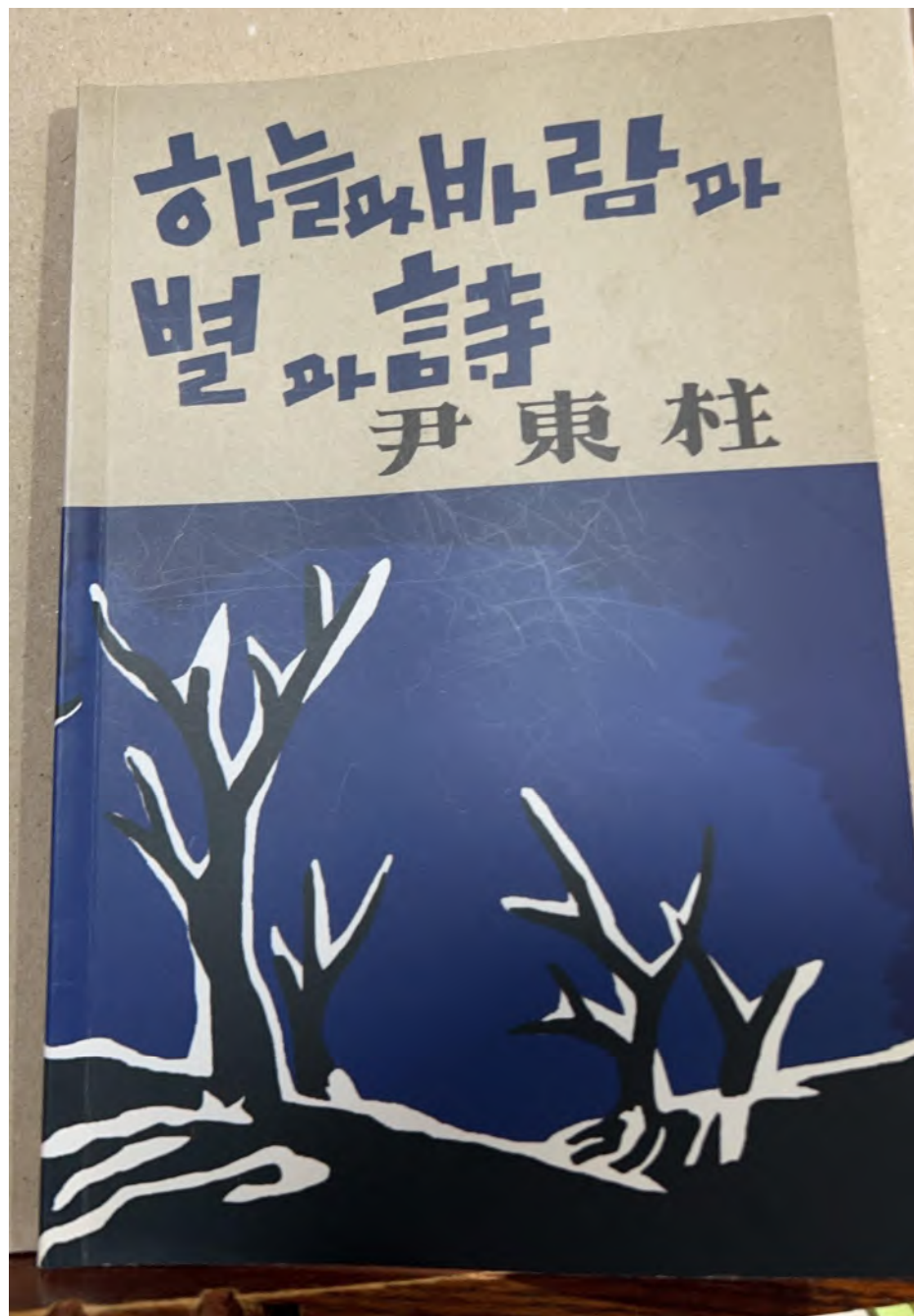
「天と風と星と詩」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 尹東柱 —

鄭炳昱兄 앞

尹東柱
呈



『天（空）と風と星と詩』

初版本

1948.1.30 正音社

序 詩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自 書 像.....	16
少 年.....	18
눈 오는 地圖.....	19
돌아와 보는 밤.....	20
病 院.....	21
새로운 길.....	23
看板 없는 거리.....	24
太初의 아츰.....	26
또 太初의 아츰.....	27
새벽이 올때 까지.....	28
무서운 時間.....	29
十 字 架.....	30
바람이 불어.....	32
슬픈 族屬.....	34
눈 감고 간다.....	35
또 다른 故鄉.....	36

길.....	38
별헤는 밤.....	40

흰 그림자

흰 그림자.....	45
사랑스런 追憶.....	47
호르는 거리.....	49
헛재 씨워진 詩.....	50
봄.....	52

밤

밤.....	55
道 言.....	56
아우의 印像畫.....	57
慰 勞.....	58
肝.....	59
산 골 물.....	61
懺 悔 錄.....	62
序 文.....정 지 용... 3	
追 悼 詩.....柳 玲... 65	
跋 文.....姜 處 重... 69	

裴 頓・李 規

(序 詩)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르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외세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1941. 11. 20)

詩から浮かび上がる尹東柱の面影

- (1) 道を模索する 「道」 「恐ろしい時間」
- (2) 人进行思う 「弟的印象画」 「星を数える夜」
「少年」 「雪降る地図」 “順伊(スニ)”
- (3) 決意する 「十字架」 1941.5、 「序詩」 1941.11

길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손이 호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어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어
길우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 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것은 다만,
잃은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1941.9.31

道

なくしてしまいました。
何をどこになくしたかもわからず
両手でポケットを探って
道に出て行きます。

石と石と石が 果てしなく続き
道は石垣に沿って行きます。

垣は鉄の門を固く閉ざし
道の上に長い陰を落として

道は朝から夕べに
夕べから朝に 通じています。

石垣をまさぐって 涙を流し
見上げれば 天は恥ずかしいほど青いのです。

草1本生えていない この道を歩いてゆくのは
垣の向こうに わたしが残っているからで

わたしが生きるのは ただ
なくしたものをを見つけるためなのです。



별 하나에追憶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憧憬과
별 하나에詩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윤동주 1941.11.5
photo by Gregory Yang

星を数える夜

星ひとつに追憶と

星ひとつに愛と

星ひとつに寂しさと

星ひとつに憧れと

星ひとつに詩と

星ひとつにお母さん、お母さん

少年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
무가지 우에 하늘이 펼쳐있다. 가만이 하늘을 들여
다 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손으로 따듯
한 볼을 쓰서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
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 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
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속에는 사랑
처럼 슬픈얼굴—— 아름다운 順伊의 얼굴이 어린다.
少年은 황홀이 눈을 감아 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얼굴—— 아름다운 順伊의 얼굴
은 어린다.

(1939)

눈 오는 地圖

順伊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할 마음으로 함박눈이
나려, 슬픈것 처럼窓밖에 아득히 깔린 地圖우에 덮
인다.
房안을 돌아다 보아야 아무도 없다.壁과天井이 하
얕다.房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정말 너는
잃어버린 歷史처럼 홀홀이 가는것이나, 떠나기前에
일러둘말이 있든것을 편지를 써서도 네가 가는 곳을
몰라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방 밑,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 있는 것이냐, 네 조고만 발자욱을
눈이 작고 내려 덮여 따라갈수도 없다.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욱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꽃사이로 발자욱
을 찾아 나시면 一年열두달 하얗게 내 마음에는 눈이
나더리라.

(1941. 3. 12)

「少年」

「雪の降る地図」

成立年代が違うが、
並べられている。

両方の詩に女性の名
「順伊」(スニ)が
出て来る。

少年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섭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쓰서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 아름다운 순이 順伊의 얼굴이
어린다. 소년은 황홀히 눈을 감아 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 아름다운
順伊의 얼굴은 어린다.

少年

そこかしこ紅葉のような悲しい秋がはらはらと落ちる。紅葉が落ちてきた
ところごとに春を備えて、木の枝の上に空が広がっている。そっと空をの
ぞき見ようとすると、眉毛が青く染まる。両手で温かい頬を撫でてみる
と、手のひらも青く染まる。もう一度手のひらをのぞき見る。手の筋には
澄んだ川の水が流れ、澄んだ川の水が流れ、川の水の中にはいとしくも悲
しい顔 —— 美しい順伊^{スニ}の顔が映る。少年はうっとり目を閉じてみる。
なおも澄んだ川の水は流れ、いとしくも悲しい顔 —— 美しい順伊^{スニ}の顔は
映る。

序詩
自筆

주를 볼까 지 하늘을 우르러
 한참 부끄럼이 없기 르,
 앞서 미 이는 바람기 도
 나는 괴로워 했다.
 별을 노래 하는 나음으로
 모든 주어가는 것은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의 ^{생안}테 주어진 길을
 거리가야 적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이
 스치운다.

1941. 11. 20,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序詩

1941.11.20

死ぬ日まで天を仰ぎ
一点の恥なきことを、
木の葉に起こる風にも
わたしは苦しんだ。
星をうたう心で
すべての死んでゆくものを愛さなければ
そしてわたしに与えられた道を
歩みゆかねば。

今夜も 星が 風にさらされる。

新約聖書

英和對照

NEW
TESTAMENT
ENGLISH-JAPANESE

NEW TESTAMENT
ENGLISH AND JAPANE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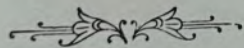
獄中から家族に差し入れを求めた
英和対照新約聖書

我らの主なる救主イエス・キリストの

新約聖書

希臘原語より翻譯せる大正六年完成の改譯

英和對照



神戸英國聖書協會

西曆一九二八年

THE GOSPEL

ACCORDING TO

S. JOHN.

ヨハネ傳福音書

CHAPTER I.

- 1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 2 The sam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 3 All things were made by him; and without him was not anything made that hath been made.
- 4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en.
- 5 And the light shineth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apprehended it not.
- 6 There came a man, sent from God, whose name was John.
- 7 The same came for witness, that he might bear witness of the light, that all might believe through him.
- 8 He was not the light, but came that he might bear witness of the light.
- 9 There was the true light, even the light which lighteth every man, coming into the world.
- 10 He was in the world, and the world was made by him, and the world knew him not.
- 11 He came unto his own, and they that were his own received

第一章

- 一 太初[ヘジノ]に言[コトハ]あり。言は神と偕にあり。言は神なりき。
- 二 この言は太初に神とともに在り。
- 三 萬の者これに由りて成り。成りたる物に一つとして之によらで成りたるはなし。
- 四 之に生命[イノチ]あり。この生命は人の光なりき。
- 五 光は暗黒[クラキ]に照る。而して暗黒は之を悟らざりき。
- 六 神より遣されたる人いでたり。その名をヨハネといふ。
- 七 この人は證[アカシ]のために來れり。光に就きて證をなし。また凡ての人の彼によりて信ぜん爲なり。
- 八 彼は光にあらず。光に就きて證せん爲に來れるなり。
- 九 もろもろの人をてらす眞[マコト]の光ありて。世にきたれり。
- 十 彼は世にあり。世は彼に由りて成りたるに。世は彼を知らざりき。
- 十一 彼は己の國にきたりしに。己の民は之を受けざりき。

(序 詩)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르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있세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1941. 11. 20)

すべての死んでゆくものを
愛さなければ
そしてわたしに与えられた
道を歩み行かねば……

『天と風と星と詩』
初版本31編の詩の冒頭に置
かれた「序詩」